

캠퍼스 안 시민언론사 경성대 '시빅뉴스'

“대학생만 상대하느냐고요? 대학병원이 대학생만 치료합니까”



www.civicnews.com

벚꽃은 내리는 길 끝에 경성대 문화관이 보였다. 경쾌한 웃음소리를 따라 3층에 들어섰다. 'CIVICnews 편집국'이라는 파란색 간판이 선명하다. 사무실 안에서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뭔가를 열심히 논의 중이다. 2층 뉴스취재부에서는 학생들이 취재한 내용을 열심히 정리하고 있다. 방송실도 복제된다. 다시 한 번 간판을 본다. 자세히 보니 '작은 것도 크게 보는 시민언론'이라고 돼 있다. 캠퍼스 안의 시민언론사, 알고 싶었다.

■ 실습용 사이트에서 인터넷 언론사로!

'CIVICnews'(www.civicnews.com)는 경성대 신문방송학과(이하 신방과)가 학교 기업으로 설립한 인터넷 뉴스 사이트다. 뉴스를 단순히 실어나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생산하는 사이트다. 지난달 부산시청에 정식 언론사로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어엿한 지역 인터넷 언론사이기도 하다. 부산지역 대학가에 다양한 종류의 학교 기업이 있지만, 이 같은 뉴스 분야는 처음이다.

CIVICnews는 지난 2005년 학교 내 실습용 사이트에서 출발했다. 현재 편집국 자리에 마련된 실습실에서 현장실습과목을 듣는 3~4학년 학생들이 주로 이용했다. 당시 사이트는 학생들이 현장실습한 내용을 기사나 영상으로 제작해 올리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던, 일종의 비공개 게시판이었다. 신방과가 학생들을 위한 실습용 사이트를 대중이 드나드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로 전환해보자는 논의를 처음 한 것은 지난해 2학기 때부터였다. 정태철 학과장을 비롯한 신방과 교수들은 의대에 부속병원이 있듯 신방과에 부속 언론사가 있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부속 언론사에서 경력을 쌓아 별도의 수습 기간 없이도 언론사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자격적소의 인재를 길러내자는 게 주 목적이었다.

기존 언론사의 진입 장벽이 지방대생에게 턱없이 높은 것도 또다른 원인이었다.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으니 전문지나 잡지사처럼 경력직을 선호하는 언론사에도 발을 쉽게 들여놓을 수 없었다. 신방과를 졸업하고도 전공을 살리지 못해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교수들은 부속 언론사 필요성을 절감했다. 교수들은 교육과정과 연계된 경우



CIVICnews는 재학생들에게 학점 취득과 언론인 경력을 쌓고, 졸업생들에게는 취업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사진은 CIVICnews 편집실에서 동영상 뉴스를 편집 중인 학생 기자들.

“학생 실습용 언론사 만들자” 신방과 교수·학생 의기투합 사업자 등록하고 내달 출범

졸업생 1명 정식기자 채용 학생은 취재·교수는 데스크 기성 언론사와 당당히 경쟁



CIVIC news에 참여하는 경성대 신방과 학생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학교 내에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학교 기업을 만드는 데 의기투합했다.

■ 내달 초 출범 앞두고 기대만발

교수들을 비롯한 신방과 학생 30여 명은 인터넷 언론사를 만드는 데 지난 겨울방학을 꼬박 바쳤다. 우선 언론사 명칭 정하기부터 머리를 맞댔다.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의 시민언론(civic journalism)에서 명칭을 따오기로 했다. 발음이 'See big'과 닮아 '작은 것도 크게 보는 시민언론'을 대표 슬로건으로 삼았다. 2005년부터 최근까지 게재된 모든 기사들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려 일일이 수정해 올렸다.

기자 역할은 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3~4학년 학생 80명이 맡기로 했다. 교수들은 해당 과목별 데스크 역할을 맡아 학생들을 '준비된 언론인'으로 훈련하는 맞춤형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다음달 초 정식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인 편집국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달려온 학

생들로 이내 북적였다. 교수들의 지적에 쫓겨 기사를 수차례 고쳐써도 학생들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학생들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데다가 경력까지 쌓을 수 있어 CIVICnews에 대한 기대가 특히 크다. 신문기자에 매력을 느껴 신방과에 진학했다는 3학년생 권경숙(21) 씨는 “지금은 직접 기사를 쓰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지만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 실제 기자가 되었을 때 좀 더 쉽게 적응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스포츠 캐스터에 관심있는 3학년생 임기석(23) 씨도 “지금 '신상탈기'에 대한 기사를 준비 중인데 내가 쓴 기사를 다른 사람이 본다고 생각하니 글쓰기가 더 힘들다”고 웃음지었다. 이도원(25) 조교는 “기업이라고 해도 학교라는 한계 때문에 초반에는 힘들겠지만 언론사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수님과 학생들을 돕겠다”고 단차게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 졸업생 기자 1호도 탄생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는 학교 기업인 만큼 졸업생 기자도 채용해 취업의 숨통을 틔웠다. 실제로

졸업생 기자 1호 이진현(27) 씨가 이달 초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타지역 방송국과 잡지사에서 인턴기자 생활을 했던 이 씨는 학내에 언론사를 직접 만들어 지방대생의 취업 활동을 풀어보자는 정 학과장의 제안을 수락했다. '신생 언론사' 원년 멤버가 됐다는 사실이 뿌듯하면서도 부담이 크다. 이 씨는 “현장에 나가면 어떤 언론사인지 설명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든다”면서도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부산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CIVICnews 창업을 주도했던 정태철 학과장은 “다음달 초 정식 출범까지 제대로 준비해 시민들에게 경성대 신방과 학생들의 기량을 선보이고 싶다”며 “재학생들에게는 학점 취득과 경력을, 졸업생들에게는 취업의 장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퍼스 안의 시민언론사, 출범 이후 모습이 더욱 궁금해진다. 정달식·윤여진 기자 edu@busan.com
사진=강원태기자 kwang@

www.newbusantour.co.kr 한글인터넷주소 **뉴부산관광**

(주)뉴부산관광 ☎ 806-8811
여행사 ☎ 816-8811

[당일]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당일교통+입장권)
₩42,000 (성인기준)
▶ 4/20부터 ~ 10/20까지

부산 ↔ 제주 선박 (에스케이 웨리) 취항
제주 2박3일
(제주관광, 한라산등반, 올레투어 가능)
₩99,000 → 4/19부터 운항(일요일 출발 제외)
₩139,000 → 5/16, 17 (연휴요약, 선착순 100명)

국내여행 추천

[당일] 에버랜드 왕복교통+자유이용권 포함 **₩75,000** ▶ 매주 토, 일, 공휴일 출발

[청산도 1박2일] 두류산케이블카+대흥사+청산도 **₩140,000** ▶ 4/15, 20, 5/11, 17, 18
※ 국내여행은 인원이 20명 이상이 될 경우 원하는 날짜에 예약 및 출발이 가능합니다 (단체가능/상품별 상이)

제주도
제주도(내방대로 택) **2박3일 ₩199,000**부터
★ 아쿠아플라넷, 우도잠수함, 우도관광 중 무료 택1 ★
▶ 매주 일, 화, 수요일
▶ 일반교통(2인1실)/유류세, 가이 드림, 석식불포함
제주도 유채꽃투어 **3박4일 ₩139,000**부터
▶ 매주 일, 화, 수, 토, 일
▶ 일반교통(2인1실)/유류세, 가이 드림, 석식불포함/2~4인실 사용자 요금추가
제주도 품격 **2박3일 ₩265,000**부터
▶ 매일 출발
▶ 관광1급호텔/유류세, 가이 드림, 석식, 선택관광 불포함

울릉도, 홍도/흑산도 절찬리 모객중
거문도/백도 1박 2일 ₩205,000부터
▶ 5/4, 11, 25 (출발확정)
홍도·흑산도 2박3일 ₩245,000부터

게릴라/양산 5일/(이프) 6일 ₩799,000부터
▶ 4/30, 5/3, 7, 10, 14, 17, 31, 6/4, 7, 11, 14
• 불포함: 유류할증료 108,300원, 가이 드림(\$40~\$50), 비자비 25,000원 별도

★ **창사 40주년 기념상품** ★

러시아+북유럽 4개국 12일 ₩3,160,000부터
▶ 5/22(확정), 28, 6/2, 5, 10(확정), 12, 24, 26(확정), 7/3, 8, 10, 15, 17(확정), 31(확정)
• 불포함: 유류할증료(39만원), 공동경비(120유로), 러시아비자(12만원)

JAL [품격] 서유럽 핵심 4개국 (영/프/스/이) 10일 ₩3,590,000 ▶ 5/29 (단 1회)
• 특전: 세노강 유람선아간무료업그레이드, 베니스 곤돌라체험, 몽파르나스호텔, 동정
• 불포함: 유류할증료(40만원), 공동경비(100유로)

중국
“민족의 영산” **백두산 직항 전세기**
6월 4일~8월31일 화, 토 운항
연길직항/백두산(복파+서파) 6일 ₩699,000 ▶ 6/11 [위험 추가가 단 1회]
• 불포함: 유류할증료(108,300원), 비자비(25,000원), 가이 드림(\$50)

동남아
[특가] 보라카이 직항 4일
₩399,000부터 ▶ 4/18, 25, 5/2, 9, 23, 30
• 불포함: 공동경비(\$50), 현지공항세(550페소), 유류할증료(140,000원)
하노이/하롱베이+캄보디아 앙코르왓 6일 ₩949,000부터 ▶ 4/23, 27, 5/1, 3, 8, 10, 12, 17, 21, 25, 27, 6/5, ⑥
• 특전: 가이 드림&가이 드림, 캄보디아VIP비자비, 인미2회, 유류할증료 포함

[정통]장사/장가계/원가계/천문산 5일/6일 ₩399,000 ▶ 5/1, 11, 18 [초특가 단 3회]
• 불포함: 유류할증료 102,300원, 가이 드림(\$50), 비자비 25,000원, 추천선착관광 별도
₩1,049,000부터 [유류세 비자비 포함]
▶ 4/18, 20, 24, 25, 27, 5/9, 11, 13, 18, 20, 22, 23, 25
• 불포함: 가이 드림(\$40~\$50)

[실속]방콕/파타야+코끼리트레킹+알카자소 5일 ₩549,000부터 ▶ 4/23, 25, 27, 5/2, 7, 10, 14, 18, 21, 23, 25
₩849,000 → ₩749,000 ▶ 5/15, 16, 6/6 [항공연휴]
• 특전: 알카자소, 코끼리트레킹, 특식3회(세푸드, 로얄트레킹, MK수거)
• 유류할증료 120,000원, 가이 드림 \$40 별도

홍콩/심천/마카오 5일 ₩729,000부터 ▶ 4/17, 24, 25, 30, 5/1(확정)
• 불포함: 유류할증료 104,000원, 가이 드림 \$40 별도

대만/화롄/야류/지우펀 4일 ₩649,000부터 ▶ 5/1, 3, 5, 7, 10, 12, 14, 18, 21, 23
• 불포함: 유류할증료 115,300원, 가이 드림 \$40 별도

일 본

♣ **대아고속 봄맞이 이벤트** ♣
[초특가] 대마도 역사탐방 2일
₩169,000 ▶ 5/2, 6 [단 2회]
• 불포함: 유류할증료(20,000원), 가이 드림(20,000원)
[드림호] 북큐슈 3일
₩269,000 ▶ 5/19, 21 [단 2회]
• 불포함: 유류할증료(47,000원), 가이 드림(₩3,000)

[에어부산] 오사카/나라/교토/고베 3일 ₩429,000 ▶ 4/21 [단 1회]
• 불포함: 유류할증료(59,000원), 가이 드림(40,000원)
동경/하코네 3일 ₩599,000부터 ▶ 5/7, 9, 14, 21, 23, 27, 29
• 불포함: 유류할증료(63,000원), 가이 드림(30,000원)

[노티] 북알프스/알펜루트+하코네 4일 ₩799,000부터 ▶ 4/24, (25), 5/(7), (8), (10)(확정)
• 불포함: 유류할증료(60,000원)

유럽/미주/대양주

[품격] 서유럽 5개국 10일 (부산출발) ₩3,290,000부터 ▶ 4/28(확정), 5/1(확정), 15(확정), 18(확정), 24, 31(확정), 6/2, 14, 21
• 불포함: 유류할증료(430,000원), 공동경비(100유로)

[품격] 동유럽 6개국 10일 (부산출발) ₩2,890,000부터 ▶ 5/7(확정), 10(확정), 22(확정), 28, 6/4(확정), 11(확정)
• 불포함: 유류할증료(350,000원), 공동경비(100유로)

미서부 3대 캐년 9일 (부산출발) ₩1,790,000부터 ▶ 4/22, 25, 5/13

☼ **[품격] 캐나다항공일주+나이아가라 8일 ₩3,290,000**부터 ▶ 6/7, 12, 21, 28, 7/4, 11, 18
• 특전: 특식(3회) 추가, 캐나다 로키 빙하체험
• 불포함: 유류할증료(45만원), 가이 드림&가이 드림(\$80)

• 공통조건: 1인당 여행보험/국내외 공항, 항만세, 관광진흥개발기금/안내지경비 포함/1급호텔이상(2인1실, 일부제외), 전일정식사(가내식 포함, 일부제외), 최소출발인원 10명이상(전문안내원 동행, 일부제외), 교통편(항공, 버스, 기차) 유류세 및 환율변화에 따른 요금 변동 가능 • 추가경비 없음(단, 개인적인 탐, 선택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관광사업등록증 제196호